

##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김 병 숙<sup>†</sup>                      안 윤 정                      송 혜 령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본 연구는 취업욕구가 높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정착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역할 하는데 필수적인 직업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 대상과는 다른 결혼이주여성의 특수한 논점과 경험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혼이주여성 면담, 관계자 면담 등의 결과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결혼이주여성 직업적응 프로그램은 다문화의 이해, 기초적인 경제개념에 대한 이해 및 활용, 직업 및 노동시장의 이해, 자기이해와 분석, 조직적응과 직무능력의 배양, 진로목표설정 등 6회기로 구성하였다. 직업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선정하고 실험집단에는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두 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효과검증을 한 결과 직업적응 프로그램을 받은 결혼이주여성들은 진로정체감, 직업정보, 직업문화적응, 진로포부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적응 프로그램이 취업에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고 보다 긍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직업적응 프로그램, 직업상담, 직업문화적응, 진로정체감, 진로포부, 직업정보

\* 이 연구는 200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사회과학지정주제사업의 지원금으로 수행되었음.  
<sup>†</sup> 교신저자 : 김병숙,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442-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E-mail : bsllkim@hanmail.net, Tel : 031-249-9019

결혼이주여성 관련 연구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는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 및 우울을 포함한 신체적·정신적 건강(홍달아기 외, 2006; 김오남, 2007; 김혜자, 2008; 안양희, 2008; 양승민, 2008)과 갈등이나 만족감의 적응문제(양순미, 2006; 김영란, 2006; 박정숙 외, 2007; 설동훈 외, 2008) 등이다. 그 외에 다문화와 한국문화 교육 등을 다룬 문화적 접근(오성배, 2006; 장미영, 2008; 박경동, 2008), 언어적 갈등과 환경에 관한 접근(정은희, 2004; 고은, 2006; 서혁, 2007), 젠더관점(김현미, 2006; 이승우, 2007; 전경옥, 2007), 부부갈등(김오남, 2006) 등이 있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종개발과 관련된 연구(김영하 외, 2008)와 교육프로그램 필요성에 관한 연구(박은주, 2009)가 있다. 이렇듯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는 그들의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모델과 지원정책을 다룬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면서 실태조사, 만족도, 정책적 대안 등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을 본격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취업과 관련된 그들의 욕구와 맥락 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혼이주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자마자 겪는 장벽과 어려움이 이주여성노동자와 다르지 않지만(박수진, 이지나, 2002), 이들과는 다른 맥락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자신의 출신국과 전혀 다른 사회적·문화적 환경으로 인한 문화충돌과 소외는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서툰 한국어와 낯선 음식과 같은 일상생활, 가부장적 전통으로 인한 가족구조 등 사회적·문화적 충격을 일방적으로 극복하도록 요구받는 동시에 자신의 출신국에 대하여 철저한 외면을 경험한다. 대다수 결혼이주여성

들이 이러한 극복요구에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식’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지향하려는 모습이다(김이선 외, 2006).

결혼이주여성 가구의 많은 비율이 저소득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은 한국 전체 가구소득의 59%, 한국 전체 생산직 가구소득의 68% 등이다(설동훈 외, 2006). 이러한 현실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은 인생전반을 통해 안정성의 토대가 된다(윤홍식, 2004; 윤홍식 외, 2005). 임신, 출산, 자녀 양육 등 가족부양으로 미취업상태인 결혼이주여성들도 직업욕구가 강하지만, 기술, 정보, 언어, 문화에 대한 이해 등으로 취업이 어렵다(권미경, 2007).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한 프로그램 가운데 한국어 교육이 가장 도움이 되었으며,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은 컴퓨터·정보화 교육, 취업교육·훈련 등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요구에 비해 취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은 7%로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설동훈 외, 2006).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적응하기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은 과반수를 넘지 않는다(김현정, 2007). 특히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한국음식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에 비해 직업기술교육이나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는 상대적으로 낮다(정영덕, 2004). 국내에서 이뤄지는 결혼이주여성 대상 적응프로그램은 대부분 학교현장에 이루어지는 다문화 교육과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시행되는 적응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룬다. 이민자들은 순응, 적응, 통합 단계를 거쳐 그 사회에 정착하게 되는데 마지막 시기인 통합의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에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갖는 것이 이 시기의 주요관건으로 경제

적·정치적·문화적·사회적 통합 중에서 경제적 통합이 중요하며 우선 경제적으로 자립할 경우 다른 분야의 통합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Prairie Global Management, 2008).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적응의 측면 외에도 진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직업인으로서의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의 이주 요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선택했다는 결과는 경제적 요구에 의해 이주와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김영하 외, 2008). 이러한 의도 하에 이주와 국제결혼을 하는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의도에 부합되는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이 능동적 시민성을 확보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진 능력과 역량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들의 경제적 능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직업관련 교육은 한국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정책에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을 추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므로(김형균, 2006)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의 직업능력을 개발, 향상시키고 현장에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직업적응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직업적응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삶과 적절한 직업선택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개인의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적응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하는 전환 교육적 요소를 포함한다(Brolin, 1992; Wehman, 1996; Sitlington, Clark & Kolstoe, 2000). 조성열과 이용수(2005)는 특수학급학생의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연구에서 직

업적응훈련 프로그램이 대인관계 및 사회적응 능력 향상과 직업을 통한 자조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고, 이금숙(2001)은 직업적응 프로그램이 독립적인 시민이 될 잠재력을 증가시키고 긍정적 상호작용을 향상시켜 학업성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적응은 한국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소득, 기술, 직업의 획득을 의미하며 정신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포함한다(윤인진, 1999). 조난영(2006)은 이주노동자의 직업적응 관련 연구에서 직업적응이란 사람이 직업생활에 있어서 개인적인 주관적·사회적 요건을 능동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므로 능력과 성격을 활용하여 자기의 가치를 실현하며 정서적 만족을 찾는 과정이라 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과 관련된 “GROW”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은 ‘나는 누구인가, 이미지 풀라쥬, 나의 심연알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타인과 관계 맺기, 자기 존중감 증진, 다문화적인 교류’ 등의 6회기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부산인적자원개발원, 2007).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개발의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직업적응을 위한 직업정보, 조직적응, 직무능력 등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자기 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직업적응 프로그램 사전연구에 해당하는 연구 1과 직업적응 프로그램 효과검증을 다룬 연구 2로 구성한다. 연구 1에서는 설문을 통한 실태조사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한 반 구조화된 면담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적응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도

출할 것이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된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문화 및 경제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 연구 1: 직업적응 프로그램 개발

본 장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적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단계로 설문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직접 그들을 면담하여 결혼이주여성의 경험과 실제적인 맥락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직업적응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조사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교육 및 취업경험, 취업욕구 및 희망직업, 한국어 능력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방 법

####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직업적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선행연구(윤인진, 1999; 설동훈 외, 2006; 조난영, 2006; 김현정, 2007)에서 제시된 조사를 검토하여 설문지와 면담지 2종을 개발하였다. 설문내용은 그들의 취업과 관련된 실태조사의 성격으로 구성되었으며,

면담지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결혼이주여성의 인구학적인 정보와 더불어 한국과 본국에서의 구체적인 취업기간과 담당업무, 교육내용, 취업욕구 및 희망직업, 취업장벽, 한국어능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 원하는 취업직종, 취업형태, 근무시간, 임금수준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진이 결혼이주여성의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는 지원센터와 교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및 면담기간은 2009년 2~5월에 실시하였으며, 전국의 관련 사회단체에 배포하였다. 설문지 배포는 400부를 하였으나 표 1과 같이 230명으로 57.5%의 회수율을 보였다.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44.3%), 중국(29.6%), 필리핀(26.1%) 순으로 베트남이 가장 많았다. 학력을 보면, 중졸 이하(23.4%), 고졸(47.8%), 전문대졸 이상(26.9%) 등으로 고졸 이상의 비율이 74.7%에 이른다. 한국체류기간은 5년 미만이 72.2%로 최근 5년 사이에 집중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자녀수는 1명 39.5%, 2명 20.1% 등으로 59.6%가 자녀가 있으며, 미취학 자녀를 둔 비율도 49.2%에 이르러 출산과 자녀양육기간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설문지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면담을 통해 그들의 상황과 요구를 조사하였다.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한국의 거주기간 3년 이상의 서울, 인천, 진주, 충주, 목포 등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18명을 대상으로 30~60분에 걸쳐 면담을 진행하였다. 관계자의 면담은 결혼이주

표 1.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설문대상)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수	비율
국적	중국	68	29.6
	필리핀	60	26.1
	베트남	102	44.3
	합계	230	100.0
연령	25세 미만	94	40.9
	25~30세 미만	58	25.2
	30~35세 미만	44	19.1
	35세 이상	34	14.8
	합계	230	100.0
학력	중졸 이하	54	23.4
	고졸	110	47.8
	전문대졸 이상	62	26.9
	무응답	4	1.7
	합계	230	100.0
거주기간	5년 미만	166	72.2
	5~10년 미만	42	18.3
	10년 이상	14	6.0
	무응답	8	3.5
	합계	230	100.0
자녀수	자녀 없음	27	11.7
	1명	91	39.5
	2명 이상	46	20.1
	무응답	66	28.7
	합계	230	100.0
막내자녀 나이	7세 이하	113	49.2
	초등학생 이상	12	5.2
	자녀 없음	26	11.3
	무응답	79	34.3
	합계	230	100.0

여성을 현장에서 만나는 사회단체와 관련기관 실무자들, 한국어, 바리스타 등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등으로 이뤄졌다.

결혼이주여성의 면담은 본국과 한국의 취업 경험(직종, 직무내용, 근무조건, 연봉, 만족도), 취업욕구(취업이유, 취업가능직종, 직무, 근로조건, 구직활동 경로), 취업장벽(구직활동에서의 장벽, 취업이후의 어려운 점, 가족 간의 갈등), 취업 시 가족의 지원, 원하는 직업적응 관련 프로그램(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재) 등이다. 특히 한국에서 취업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취업준비나 직업적응에 있어 어려웠

던 점, 힘들었던 경험,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 알아야할 정보 등을 면담지에 기초한 반구조화된 형식으로 면담이 이루어졌다.

## 결 과

### 결혼이주여성의 교육 및 취업경험

결혼이주여성들이 본국에서 취업과 관련해서 받은 교육이 있는 경우 34.8%, 없는 경우 46.5% 등이나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은

표 2.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면담대상)

사례	국적	연령	기간	학력	자녀수 (막내나이)	본국에서의 취업경험	한국에서의 취업경험
1	중국	42	7년	대졸	1명	병원 근무	노인생활지도원
2	중국	34	3년	고졸	1명(2세)	가족식당 경영 보조	없음
3	중국	29	7년	고졸	2명(3세)	유치원 교사	없음
4	중국	31	3년	고졸	1명(3세)	회사 경리사무	없음
5	중국	30	5년	고졸	1명(3세)	컴퓨터업체 사무행정	공장
6	중국	31	3년	고졸	1명(1세)	판매원	공장
7	중국	38	13년	고졸	2명(10세)	없음	중국어강사 아동양육지도사
8	중국	43	6년	대졸	3명(5세)	무역사무원	상담원
9	베트남	26	4년	중졸	1명(2세)	의류공장 직원	판매
10	베트남	23	5년	중졸	2명(2세)	농사/ 농산물 판매	없음
11	베트남	22	3년	고졸	2명(3세)	개인가정교사	없음
12	베트남	22	4년	고졸	임신 중	재봉사	없음
13	베트남	23	4년	고졸	1명(3세)	가족커피점 경영보조	반찬가게 보조
14	베트남	31	4년	고졸	1명(2세)	옷 재단	없음
15	필리핀	36	9년	전문대졸	2명(7세)	전문 비서	유치원 영어강사
16	필리핀	31	10년	고졸	3명(4세)	백화점 신발 판매	없음
17	필리핀	47	13년	대학원졸	3명(7세)	과학/영어강사	학원강사
18	필리핀	33	5년	대졸	2명(3세)	사무직원, 판매원	영어강사

56.1%로서 본국에서보다 한국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은 경우가 더 높았다. 결혼이주여성이

취업장벽으로 지적한 것은 서투른 한국말 23.0%, 자녀양육 22.2%, 일자리를 못 찾음 16.5% 등의 순이다. 과거 취업직종을 살펴보면, 생산직 13.9%, 전문직 13.5%, 서비스직 10.9% 등이며 전문직의 다수는 교사, 강사, 간호사 등이며 서비스직은 판매직이 다수를 차지하였다(표 3 참조).

표 3. 결혼이주여성의 관련 교육 및 취업경험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수	비율
본국에서 받은 교육	없음	107	46.5
	있음	80	34.8
	무응답	43	18.7
한국에서 받은 교육	없음	58	25.2
	있음	129	56.1
	무응답	43	18.7
과거 취업 직종	생산직	32	13.9
	전문직	31	13.5
	서비스직	25	10.9
	사무직	13	5.7
	창업	6	2.6
	취업경험 없음	117	50.9
	무응답	6	2.6
취업했던 국가	본국	78	72.9
	한국	16	15.0
	양국	8	7.5
	무응답	5	4.7
취업 장벽	서투른 한국말	53	23.0
	자녀양육	51	22.2
	일자리를 못 찾음	38	16.5
	취업방법을 몰라서	29	12.6
	가족반대	18	7.8
	가사	6	2.6
	기타	10	4.3
	무응답	25	10.9
	계	230	100.0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욕구 및 희망직업

중국, 필리핀, 베트남 모두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국가들이며 남녀평등의식이 높아 취업욕구와 의지가 높게 나타났다(표 4 참조). 이들의 취업욕구를 보면, ‘낮은 조건이라도 감수하고 바로 시작할 수 있다’ 13.0%,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있다면 취업 하겠다’ 31.7%, ‘취업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돼서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29.1% 등 73.8%의 취업의사를 보여 기존 연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와도 일치한다. 희망취업형태는 전일제 107명 46.5%, 시간제 75명 32.6%, 자영업 11명 4.8%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직종은 교육 및 상담 101명 43.9%, 제조 71명 30.9%, 서비스 39명 17.0%, 창업 19명 8.2% 등의 순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본국에서 전문직을 가졌던 사람도 이민 온 국가에서 가족부양책임이나 언어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민 이전보다 못한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므로(전경옥, 2007) 결혼이주여성들의 희망직종과 한국에서 취업가능한 직종간의 차이가 클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거주기간에 따른 한국어 능력

앞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적응하여 취업을 하는데 있어 언어적 문제가 큰 진로장벽

표 4.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욕구 (단위: 명, %)

문항	응답자수	비율
낮은 조건이라도 감수하고 바로 시작할 수 있다.	30	13.0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있다면 취업하겠다.	73	31.7
취업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돼서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리고 있다.	67	29.1
상황은 가능한데 취업의사가 없다.	5	2.2
기타	19	8.3
무응답	36	15.7
계	230	100.0

표 5.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의 차이

종속변인	거주기간	N	M	SD	F	Duncan
말하기	5년 미만	156	2.59	1.00	11.23 **	a=b<c
	5년-10년 미만	54	2.89	1.09		
	10년 이상	20	3.70	.86		
듣기	5년 미만	156	2.57	1.30	10.71 ***	a=b<c
	5년-10년 미만	54	2.91	1.38		
	10년 이상	20	3.95	.69		
읽기	5년 미만	156	2.62	1.31	6.21 **	a=b<c
	5년-10년 미만	54	2.78	1.37		
	10년 이상	20	3.70	.92		
쓰기	5년 미만	156	2.59	1.30	3.20 *	a=b<c
	5년-10년 미만	54	2.65	1.25		
	10년 이상	20	3.35	.99		

\* p<.05, \*\* p<.01, \*\*\* p<.001

주: 1. a 5년 미만, b 5년-10년 미만, c 10년 이상을 의미함.

2. M은 ‘매우 서툴다’ 1점, ‘약간 서툰 편이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잘하는 편이다’ 4점, ‘매우 잘한다’ 5점 등의 평균값임.

임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한국어 능력을 보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 한국어 말하기( $F=11.23, p<.01$ ), 듣기( $F=10.71, p<.001$ ), 읽기( $F=6.21, p<.01$ ), 쓰기( $F=3.20, p<.05$ )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5 참조). 박주희와 정진경(2007)의 연구에서도 동일

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어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언어적 어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이나 연령, 언어습득 능력 또한 직업적응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적응 프로그램 요구도**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적응 프로그램 요구도 결과는 개방형 질문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무응답이 38.3%를 보였다. 응답한 142명을 주제별로 분석하여 표 6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현이 각각 다르고 한국말 대답이 서툰 것을 감

표 6.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요구(설문지) (단위: 명, %)

내 용		응답자수	비율	
다문화	한국문화와 한국말에 대한 이해	12	21	9.1
	가족들로부터 인정받기	5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 이해하기	4		
경제	재테크하는 방법	8	17	7.4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	7		
	물건 싸게 사는 법	2		
직업정보	직장을 구하는 방법	11	22	9.6
	한국 직업의 종류와 되는 길	6		
	취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	5		
자기인식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찾기	7	16	7.0
	인생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일	6		
	어려움 극복	3		
조직문화	한국의 직장문화	9	25	9.2
	직장에서 꼭 지켜야 할 것	6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	5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 잘하기	5		
성공	한국에서 꿈을 이루는 것	7	20	8.7
	한국에서 성공하는 길	9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사례	4		
기타		21	9.1	
무응답		88	38.3	
계		230	100.0	

안하더라도 유사한 의미와 맥락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직업정보 9.6%, 조직문화 9.2%, 다문화 9.1%, 성공 8.7%, 경제 7.4%, 자기이해 7.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대답으로는 ‘자녀교육’, ‘한국음식요리법’,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결혼이주여성의 면담내용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직업정보(7명), 다문화(6명), 조직문화(6명), 성공(5명), 자기인식(3명), 경제(3명) 등의 순으로 18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중복으로 응답하였다. 요구도 조사결과 결혼이주여성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직업정보, 조직문화, 다문화, 성공, 경제, 자기이해 등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 연구 2: 직업적응 프로그램 효과분석

본 장에서는 연구 1에서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 직업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결혼이주여성에게 특화된 직업적응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동질성 확인을 기반으로 직업적응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적응 프로그램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애를 맞이하여 진로를 고려하고 취업 고민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나 행동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는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충격, 진로단절로 인한 출신국 학력과 직업경험의 단절, 한국의 직업문화에 대한 낮은 이해와 적응력에 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전연

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이 느끼는 취업장벽으로 서투른 한국어가 가장 큰 비중(23.0%)을 차지하고 있다. 김영란(2006)은 이주노동자의 31.9%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많은 고통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는 취업뿐만 아니라 이주여성의 고립으로 이어지면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등 이주초기에 여성들의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준다(박주희, 정진경, 2007).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과 적응에 대한 연구(김영란, 2006; 권미경, 2007; 양승민, 2008)는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이 주로 동화적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마찰을 줄여 한국에서의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에게 요구되는 일방적 동화적 문화적응은 자칫 그들의 정체성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면담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이 3년 이상 거주하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나 적응이 어느 정도 가능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선호직종이 교육 및 상담 43.9%, 제조 30.9%, 서비스 17.0%, 창업 8.2% 등으로 나타나 상당수가 본국에서의 학력, 노동경험 등과 무관함을 보여주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장서영 외, 2009)와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본 직업적응 프로그램은 언어소통이 가능한 한국에 3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문화충격의 의미,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진로정체감 향상, 경제적 능력, 조직문화 이해, 기초적 직업능력 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표 7과 같이 개

표 7. 직업적응 프로그램의 구성

회기	영역	제목	활동 목표
1	같은 마음, 다른 모습	내 짝꿍은요?	첫 만남에서 오는 어색함을 해소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참가자들이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갖도록 한다.
		같은 마음, 다른 모습	각 나라의 다른 문화를 소개하면서 자신과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문화적인 편견이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
		입장 바꿔 생각해요	한국에서 충돌하게 되는 상황들을 제시해 주고 역할극이나 토론으로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한다.
		한국에만 있다!	각자가 겪은 한국에서의 에피소드나 신기하게 생각했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경험을 공감화 한다.
2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얼마예요?	게임형식을 통해 재미있게 생필품 및 기초적인 생활용품의 물가를 알아보게 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
		엄마는 고민이 많아요	가정경제의 의미와 합리적인 가계 운영을 위해 현명하게 지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돈을 어떻게 쓸까요?	가계부 항목에 따라 예산을 세워봄으로써 소비의 우선순위, 돈의 적절한 배분, 가정 경제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
		씩을 티우고, 꽃을 피우려면?	가정경제의 의미, 물가, 소비의 우선순위, 예산세우기를 경험한 참가자들에게 한 가정에서 부부가 차지하는 경제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3	세상 속으로	또 다른 기쁨	‘나눔’의 즐거움은 자신이 모두 쓴 후에 얻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나누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해준다.
		직업이란 무엇일까?	한국의 직업과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선 직업의 의미를 정확히 알도록 하고 직업의 필수조건을 짚어 본다.
		한국 사회 산업과 직업세계의 변화	취업하고자 하는 사회인으로서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산업의 변화추세를 알아보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을 거듭하는 직업세계에 대해 이해하여 미래 사회에 대한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브랜드 파워!	산업 및 직업의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추세를 파악하여 직업인의 마음가짐을 가져 보도록 한다.
4	나를 찾아서	일할 때 알아야 할 열 고개	취업 전후에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 사항을 재미있는 게임 형식으로 알아본다.
		흥미 찾는 미술자석	자신의 직업적 흥미 영역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현재 추구하고 있는 직업과 자신의 특성과의 일치도를 살펴본다.
		성격! 알아볼까요?	간편한 진단기준으로 자신의 성격을 알아보고 진로결정시에 자신의 성격과의 적합성을 고려해 본다.
		내가 가는 길에는	직업인으로 성장해 가는 길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목표, 강점, 지지체계, 걸림돌 등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갖는다.
5	프로를 꿈꾸며	일이 내게 주는 기쁨	자신의 흥미, 적성, 능력뿐만 아니라 가치관도 일을 선택하거나 일에 만족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또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탐색해 본다.
		프로직장인 마인드: OX퀴즈	직업관과 직업윤리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OX퀴즈를 통해 보다 쉽게 익힌다.
		인기 있는 매너퀸 되기	특별 OX퀴즈를 풀면서 직장예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예절을 익혀본다.
6	멋진 나를 사랑해요	‘나 전달법’으로 대화하기	개인 간, 가정 내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힌다.
		꿈꾸는 나를 사랑해요	생애 시간전망을 통해 진로계획을 수립해 보고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한다.
		명함 만들기	한국에서의 자신의 진로 목표를 가시적으로 세워봄으로써 목표의식을 가지고 목표 달성의 시점에 맞출 수 있는 느낌을 가상적으로 가져본다.

발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구성은 집단의 크기는 10~12명이고, 총 6회기로서 1회기 당 2시간 30분 소요되어 총 15시간의 프로그램이다. 직업적응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기의 다문화 이해는 한국인과 결혼이주여성 사이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은 물론 다양한 국적과 인종에서 오는 결혼이주여성 간의 이질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2회기는 기초적인 경제개념의 이해와 활용으로 한 가정의 소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는 소비와 지출을 유도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였다. 3회기는 한국의 직업 및 직업정보의 제공으로 한국의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경험한 직무와의 불일치를 인식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한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직업적응을 돕고자 하였다. 4회기는 결혼이주여성이 흥미와 성격 등 자기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이해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진로선택이 가능해지며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5회기는 실제 직업현장에서 필요한 조직적응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배양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실제 직업생활을 하면서 서툰 한국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질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6회기는 결혼이주여성의 미래시간전망을 늘리고 진로 목표 내에서 성공과 성취를 열망하는 진로포부를 갖게 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 방 법

## 연구대상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실험집단의 프로그램 운영은 2009년 12월 7일부터 3주 동안 주 2회 총 6회기를 실시하였다. 수도권에 있는 사회단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51명을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직업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들에게 사전검사를 하고 본 프로그램을 적용, 실시한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한국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 된 결혼이주여성들 중 교육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설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대상을 제외한 32명의 여성들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표 9에서와 같이, 20~30세 37.5%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고졸이하 65.6%, 전문대졸이상 34.4% 등이다. 자녀수는 1명이 50.0%로 가장 많고 2명이상도 28.1%에 이른다.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는 7세 이하가 59.4%로 여전히 미취학 아동의 비율이 높았다.

통제집단은 유관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던 훈련생 30명을 2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2010년 2월 첫 주에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2주 뒤에 사후검사가 이루어졌다. 실험 집단 및 통제집단에 참가한 결혼이주여성들의 특성은 표 8과 같다.

## 측정도구 및 자료처리

직업적응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Scale Self Efficacy Scale: CDMSES)의 단축형인 CDMSES-SF(Betz, Klein & Taylor, 1996)의 변인 중에서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등, O'Brien(1992)

표 8.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개인적 특성 (단위: 명, %)

구 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연령	20~30세	12	37.5	15	50.0
	31~40세	11	34.4	13	43.3
	41세 이상	9	28.1	2	6.7
학력	고졸이하	21	65.6	22	73.3
	전문대졸이상	11	34.4	8	2.7
국적	중국	11	34.4	8	26.7
	필리핀	1	3.1	1	3.3
	베트남	7	21.9	13	43.3
	일본	8	25.0	4	13.3
	기타	5	15.6	4	13.3
자녀수	없음	7	21.9	4	13.3
	1명	16	50.0	14	46.7
	2명이상	9	28.1	12	40.0
막내 자녀나이	자녀 없음	7	21.9	4	13.3
	7세 이하	19	59.4	20	66.7
	8세 이상	6	18.8	6	20.0
본국 교육경험	없다	21	65.6	14	46.7
	있다	11	34.4	16	53.3
한국에서 취업경험	없다	22	68.8	16	53.3
	있다	10	31.2	14	46.7
한국 거주기간	3년~5년 미만	13	40.6	17	56.7
	5~10년 미만	12	37.5	8	26.7
	10년 이상	7	21.9	5	16.6
계		32	100.0	30	100.0

이 개발한 진로포부척도(The Career Aspiration Scale), Holland 외(1980)가 개발한 진로결정상황 척도(My Vocational Situation)의 하위변인 진로 정체감, 진로선택에 필요한 정보, 진로선택의

방해요인 등을 참조하여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요인적재치가 낮게 나타나거나 의미가 없게 묶인 항목을 제외시키고 진로정체감, 직업정보, 직업문화적응, 진로포

표 9. 직업적응 프로그램 효과측정 타당도 및 신뢰도

요인별	측정 항목	요인 적재량	Cronbach $\alpha$
진로 정체감 (4)	나는 한국에서 나의 꿈을 실현할 계획이 있다.	.82	.62
	나는 한국에 이민 온 것이 잘 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69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는 편이다.	.55	
	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	.39	
직업 정보 (5)	나는 취업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알고 있다.	.79	.83
	나는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	.73	
	나는 한국의 직업들에 대해 알고 있다.	.71	
	나는 직장에서 지켜야 할 매너에 대해 알고 있다.	.68	
직업문화 적응 (4)	나는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아는 편이다.	.59	.74
	나는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75	
	나는 직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	.72	
	나는 직장에서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68	
진로 포부 (4)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비교적 잘 알고 있다.	.36	.76
	나는 어려움에 처한다면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72	
	나는 아끼고 저축하면 앞으로 더 잘 살 거라 믿는다.	.65	
	나의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다.	.59	
	나는 한국에서 성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	.59	

부 등 4개 변인에 대한 17개 문항으로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측정도구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구성 개념 타당성 중 판별타당성의 확보를 위해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기법인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유지하여 회전하는 방법인 직각회전방식을 택하였다. 그 결과 타당도는 요인적재량이 .36~.82의 분포를 보였고 신뢰도 Cronbach  $\alpha$ 계수는 .62~.83을 보였다(표 9 참조).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측

정, Kolmogorov-Smirnov z 검증,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 및 사후검정 등을 실시하였다.

## 결 과

직업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두 집단의 사전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분포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Kolmogorov-Smirnov z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직업적응의 진로정체감, 직업문화적응, 직업정보,

표 10.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종속변인		M	SD	Kolmogorov-Smirnov의 Z
진로정체감	통제	3.60	.54	.836
	실험	3.73	.41	
직업문화적응	통제	3.53	.59	1.131
	실험	3.70	.47	
직업정보	통제	3.25	.68	.279
	실험	3.26	.57	
진로포부	통제	3.66	.60	.869
	실험	3.79	.48	

표 11. 통제집단의 직업적응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종속변인	사전검사(N=30)		사후검사(N=30)		t
	M	SD	M	SD	
진로정체감	3.60	.54	3.64	.56	-.369
직업문화적응	3.53	.59	3.60	.64	-.494
직업정보	3.25	.68	3.13	.60	.711
진로포부	3.66	.60	3.79	.58	-.980

주: M은 '전혀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등의 평균값임.

표 12. 집단별 직업적응 프로그램의 효과차이 검증

종속변인	M		SD		t
	통제집단 (N=30)	실험집단 (N=32)	통제집단 (N=30)	실험집단 (N=32)	
진로정체감	.04	.38	.62	.62	-2.118*
직업문화적응	.07	.46	.74	.54	-2.415*
직업정보	-.11	.62	.85	.75	-3.590**
진로포부	.13	.41	.75	.66	-1.530

\* p< .05 \*\* p<.01

주: M은 '전혀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등의 평균값임.

표 13. 실험집단의 직업적응 프로그램의 효과차이검증

종속변인	사전검사(N=32)		사후검사(N=32)		t
	M	SD	M	SD	
진로정체감	3.73	.41	4.11	.45	-3.47**
직업문화적응	3.70	.47	4.16	.45	-4.01***
직업정보	3.26	.57	3.88	.48	-4.72***
진로포부	3.79	.49	4.20	.50	-3.29**

\*\* p<.01 \*\*\* p<.001

주: M은 ‘전혀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등의 평균값임.

진로포부 등에 있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차이는 없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은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표 12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별 직업적응 프로그램에서 진로정체감, 직업문화적응, 직업정보 등에 차이를 보여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적응 프로그램의 효과로 판단할 수 있다.

실험집단의 직업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은 표 13과 같다. 결혼이주여성의 진로정체감 이해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간의 t-검증을 한 결과, 표 13에서와 같이 99%(p<.01)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적응 프로그램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사전검사에 비해서(M=3.73, SD=.41) 사후검사의 평가치(M= 4.11, SD=.45)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업적응 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의 진로정체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이주여성의 직업문화적응에 대한 사후 검사 점수의 t-검증을 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4.01, p<.001). 직업적응 프로그램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사전검사에 비

해서(M=3.70, SD=.47) 사후검사의 평가치(M=4.16, SD=.45)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정보에 대한 사후검사 점수의 t-검증을 한 결과, 실험집단의 사후검사의 직업정보에 대한 점수(M=3.88, SD=0.48)가 사전검사의 점수(M=3.26, SD=0.57)와 유의미한 차이(t=-4.72, p<.001)를 보여 직업적응 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효과적임이 드러났다.

결혼이주여성이 진로포부에 대한 사후검사 점수의 t-검증을 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3.29, p<.01). 직업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은 사후(M=4.20, SD=0.50)와 사전(M=3.79, SD=0.49)을 비교할 때 높은 차이를 보여 Kahn(1998)과 Farmer(1985)의 연구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포부와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 결과와 일치한다(표 13 참조).

이와 같이 진로정체감, 직업정보, 직업문화, 진로포부 등에서 직업적응 프로그램의 효과가 검증되었다.

## 논 의

결혼이주여성은 단순히 수적인 증가를 넘어서 한국사회의 주요 구성개념이 될 ‘다문화’를 이끌어 갈 중심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갖는다. 기존연구들이 그들의 안정적 정착과 관련한 많은 결과물을 제시하였지만 주로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와 정책적 대안에 머물고 있어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부적응 요인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효과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논의점이 있다.

###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높은 취업욕구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인하여 취업장벽을 갖고 있으나 결혼이주여성의 73.8%가 '취업'에 대해 강한 욕구를 보였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인 적응 측면 외에도 직업인으로서 경제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가구소득이 한국의 평균 가구소득의 70%에도 미치지 못한 현실은 결혼의 불안정성을 완화해주고 경제적 자립능력을 가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게 돕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한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거주기간이 3년 이상 되어야 언어적 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나, 거주 3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기 위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한다. 한국어 능력에 대한 일정 수준을 갖추어야 운영될 수 있는 직업적응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거주 3년 미만자에 대하여는 한국어 교육과 병행하여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선호직종

본 연구 조사결과 결혼이주여성이 원하는 취업직종은 한국의 직업세계를 고려할 때에 학력과 불일치한 면이 크고, 더 상위의 직종을 이루고 있다.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연구(박수진 외, 2002)는 결혼이주여성이 취업을 통해 이주여성노동자로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겪는 장벽과 어려움은 일반 이주여성노동자와 다르지 않으며 진입 가능한 직종 또한 유사하다고 하였다. 또한 일반 외국인 근로자와 달리 결혼이주여성은 본국에서 전문직을 가졌더라도 가족부양이나 언어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가사일의 연속인 가정부와 식당보조 혹은 공장 등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이주여성노동자의 정체성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결혼이주여성이 진입할 수 있는 직종이 서비스직을 비롯한 단순노동직이라는 점과 그들의 종사상 지위가 임시, 일용직이 과반을 넘는다(김유경, 2009)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사전연구에서 응답한 결혼이주여성의 약 67%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농촌지역과 달리 도시거주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대부분 산업화 혹은 서비스 관련된 직종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또한 선호직종으로는 교육 및 상담이 40%를 넘었는데 이들의 높은 선호도에 비해 한국어 능력과 전문적 지식의 부족으로 현실과의 괴리감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에게 직업상담을 실시하고, 원하는 취업직종에 접근하는데에 필요한 지식, 소요되는 기간을 예측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장벽

결혼이주여성이 느끼는 취업장벽으로는 서투른 한국말(23.0%), 자녀양육(22.2%), 일자리

못 찾음(1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출산을 비롯한 자녀양육보다 언어적 문제가 취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언어능력이 나아지고 있지만 학력이나 학습능력, 연령과도 연관성이 있으므로 대상별로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변수로서 결혼이주여성 프로그램 참여대상은 한국어 수준을 가장 우선적인 변수로 고려하여 기획해야 한다. 실제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한국어 수준에 따라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점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위한 교육대상의 동질화와 관련하여 한국어 수준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으로 후속 연구에서 다뤄지는 것이 필요하다.

#### 넷째,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가능 기간

취업욕구 및 희망직업과 관련된 설문과 관계자 면담에서 이들의 강한 취업욕구를 볼 수 있는데, 응답자의 73.8%가 취업의사를 나타냈다.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주기를 감안할 때 이들이 20대 초반에 입국하여 한 명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고 육아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는 30대 초반을 지나면 거의 마무리된다. 한국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는 사회적응에 집중하지만 어느 정도 적응기간이 지나면 취업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결혼기간별 서비스 필요도를 연구한 김유정(2009)의 연구에서도 결혼 4~6년차에 이르러 취업교육에 대한 필요도가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2년 이상의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문화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3년 이상은 직업적응 프로그램, 그 이상자에게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단계적인 접근이 고려되어야 하며, 취업가능 기간에 대한 별도의 연

구도 필요하다.

#### 다섯째, 결혼이주여성의 희망 근로형태

희망근무형태는 전일제 근무를 희망하는 비율이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일제 근무를 희망한다는 것은 이들이 일반 회사나 단체 등 조직 내에서 근무하기를 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의 직업문화와 조직에 대한 이해와 적응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므로 본 직업적응프로그램에 이 부분을 추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여섯째, 직업적응 프로그램의 내용

본 연구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전연구는 전국 지역의 결혼이주여성 관련 사회단체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진행하였고, 설문지 이외에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면담, 관계자와 면담 등을 진행하였다.

사전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은 본국에서보다 한국에서 교육받은 경험이 더 많았고,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가 50%가 넘었으며, 취업경험이 있었던 경우도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의 경험이 다수였다. 취업경험이 많지 않다는 사실은 한국의 직업과 직업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에 직업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였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진로탐색 및 직업탐색의 단계에서 적용되는 진로정체감과 더불어 한국의 직업문화 충격 완화, 직업세계 이해 등을 더하였다. 그러므로 직업적응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형된 직업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일곱째, 직업적응 프로그램의 효과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해 수도권에 있는 사회단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

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51명을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직업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실시 전후 효과와 통제집단과의 비교도 진행하였다. 진로정체감, 직업정보의 이해, 직업문화 적응, 진로포부 등에 있어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직업정보와 관련하여서도 사후검사에서 직업정보에 대한 점수가 사전검사의 점수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직업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직업과 직장 생활에 대한 직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의 직업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조직적응과 책임감, 대인관계 등의 직업문화적응에 있어서 사전검사 대비 사후검사의 평가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진로계획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은 프로그램 실시 후의 진로포부에 있어서 유의미한 수준에서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진로포부는 자기효능감과도 관련이 있어 진로계획을 세우고 성공과 성취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짐이 입증되었다.

여덟째, 결혼이주여성의 차별화된 직업교육의 필요성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은 한국의 진로단절 여성의 그것과 생애주기적인 측면에서의 유사점을 갖지만 동시에 차별점이 존재한다. 유사점이라면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진로가 단절된 여성들의 진로정체감과 진로포부를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해 취업효능감을 증진시키고 대상자별 차별화된 직업정보의 제공과 구직활동으로 취업에 대한 현실가능성을 높인다는 직업교육의 목적에 있다. 이러한 직업교육의 바탕에는 교육대상 여성의 적성과 희망직종이 일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데,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출신국에서의 경력과 경험 등 관련 직업능력을 인

정해주고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반면에 중요한 차별점 중에 하나라면 이 직업교육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은 새로운 사회에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경제적·정치적·문화적·사회적 통합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인종, 국적 등 다양한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전제 되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인종적 정체성을 우리 사회에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이들 역시 국가적인 자원으로 존중되고 개발될 수 있는 직업교육의 체계적 접근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욕구와 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그들에게 특화된 직업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했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자주 외출하거나 긴 시간동안 가정을 비우는 것이 어려워 충분한 교육대상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들이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던 대상들이어서 결혼이주여성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한국에 거주기간이 3년 이상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결혼이주여성이 취업을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직업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프로그램의 목적이기에 프로그램 이수 후 결혼이주여성들의 구직활동과 직업적응 등의 활동결과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병행될 필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연구대상이 갖고 있는 한

계성으로 인해 직업적응 프로그램 다음 단계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취업직전에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후속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막연한 동정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자립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주체로서 보려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며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점이 반영되는 것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생애주기에서 비슷한 단계에 있는 한국의 진로단절 여성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통합 및 적응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모색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 경기도내 국제 결혼이민자가족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
- 고 은 (2006). 이중 언어 사용 아동의 부모들이 갖는 모국어에 대한 가치기준과 경험적 의미. 언어치료연구, 15(3), 143-162.
- 권미경 (2007). 다문화 사회의 교육문화과제 탐색: 여성결혼이민자의 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병숙 (2007). 직업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영하, 김정희, 이경숙 (2008).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교육 전문강사 양성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대구경북연구원.
- 김영란 (2006). 한국 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관련 정책. 아시아여성연구, 45(1), 143-189.
- 김오남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8(3), 63-106.
- 김오남 (2007).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2(3), 47-73.
- 김유경 (2009).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151, 29-52.
-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이선, 양인숙, 황정임, 고혜원 (2008).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통합 진전을 위한 브릿지 프로그램 추진방안. 보건복지가족부.
- 김현수, 장기명, 이난 (2004).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적용이 대학생의 진로 및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 교육심리연구, 8(1), 261-278.
- 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한국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70, 10-37.
- 김현정 (2007). 국내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 증진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남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혜자 (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배우자 지지, 건강교육 요구와 삶의 질.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4(1), 5-11.
- 문화관광부 (2005). 결혼이민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초연구.
- 박경동 (2008). 다문화가족 형성과 갈등에 대한 연구. 청소년 문화포럼, 18, 140-174.
- 박수진, 이지나 (2002). 일하며 기르며 송금하며. 성평등연구, 16, 191-234.
- 박은주 (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필요성에 관한 연구. 광주여자

- 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정숙, 박옥임, 김진희 (2007).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59-70.
- 박주희, 정진경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395-432.
- 부산인적자원개발원 (2007). 여성결혼이민자 자활능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GROW”.
- 서 혁 (2007). 다문화 가정 현황 및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인간연구, 1(12), 1-24.
- 설경옥 (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설동훈, 이혜경, 조성남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설동훈, 윤홍식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복지정책의 과제. 社會保障研究, 24(2), 109-133.
- 성미경, 이희영 (2007). 양성평등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직업관련 양성평등의식 및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수산해양교육연구, 19(1), 121-128.
- 안양희 (2008). 일 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행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2(1), 109-133.
- 양순미 (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 農村社會, 16(2), 151-179.
- 양승민 (2008). 한국적 다문화상담의 모색을 위한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반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여성가족부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 오성배 (2006). 한국 사회의 소수 민족(ethnic minority), ‘코시안’(Kosian)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16(4), 137-157.
- 육주혜, 이효성, 진홍섭, 석말숙, 이준석 (2006). 장애대학생의 EDI 진로·직업탐색 프로그램 효과분석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윤인진 (1999).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 33, 511-549.
- 윤홍식 (2004).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와 공·사적 소득이전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56(2), 5-27.
- 윤홍식, 김혜영, 이은주 (2005). 절대 및 차상위 빈곤선을 통해 본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지위 결정에 관한 연구: 저소득 여성가구주 가구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1(3), 263-288.
- 이금숙 (2001). 정신지체아동의 구조화된 사회적 기술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병준, 이동임, 최지희 (1999). 준고령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승우 (2007). 이주여성의 혼인과 법률문제. 한국동북아논총, 44, 251-271.
- 임용수 (1992). ‘진로사회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교육문제. 교육발전연구, 8, 81-107.
- 장미영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자기정체성 형성을 위한 한국문화교육 방안. 한국언어문학, 64, 355-379.
- 장서영, 김이선, 이로미, 장인자, 유지영 (2009).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을

- 위한 기초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전경옥 (2007). 젠더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 *아시아여성연구*, 46(1), 7-42.
- 정영덕 (2004). 국제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의 삶의 만족도 연구: 장수군 중심으로. 한일장신대 아시아태평양국제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은희 (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과 언어 환경. *언어치료연구*, 13(13), 33-52.
- 조난영 (2006). 국내 이주 소수 민족의 직업문화 충돌이 직업적응에 미치는 영향분석.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성열, 이응수 (2005). 특수학급 학생의 직업 적응훈련 프로그램 적용 효과. *장애인과용*, 15(2), 105-120.
- 행안부 (2009).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
- 홍달아기, 채옥희 (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 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5(5), 729-741.
- Betz, N. E., Klein, K., & Taylor, K.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47-57.
- Boyd, Monica (1989). Family and Personal Network in International Migration: Recent Developments and New Agenda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3, 638-70.
- Brolin, D. E. (1992). Life-centered career education: A competency based approach, VA: The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 Buijs, Gina (1993). *Migrant Women, Crossing Boundaries and Identities*, Berg Publishers.
- Cole, Ellen, eds (1992). *Refugee Woman and Their Mental Health*. Harrington Park Press.
- Drever, A. I.; Hoffmeister, O. (2008). Immigrants and Social Networks in a Job-Scarce Environment: The Case of German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2(2).
- Farmer, H. S. (1985). Model of career and achievement motivation for women and for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363-390.
- Holland, J. L., Gottfredson, D., & Power, P. (1980).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191-1200.
- Kahn, Jeffrey H., Nauta, Margaret M., Epperson, Douglas L. (1998). Multiple-groups analysis of predictors of higher level career aspirations among women in mathematics, science, and engineering maj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4), 483-496.
- O'Brien, K. M. (1992). *Career Aspiration Scale*. Available from K. M. O'Brien, Psychology Department,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 Parrenas, Rhacel Salazar. (2001). *Servants of Globalization: Wome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Stanford University Press.
- Pedraza, Silvia. (1991). Women and Migration: The Social Consequences of Gender. *Annual Review of Sociology*, 17, 303-325.
- Prairie Global Management (2008), "Developing Immigrant Settlement Services: A Guide for Communities. Government of Manitoba," Retrieved May 2, 2009 from [www.manitoba.ca/labour/immigrate/asset\\_library/en/resources/pdf/sett](http://www.manitoba.ca/labour/immigrate/asset_library/en/resources/pdf/sett)

- leGuide0208.pdf.
- Sitlington, P. L., Clark, G. M., & Kolstoe, o. p. (2000). *Transition Education and Services for Adolescents with Disables*.(3rd ed.) United States of America: Allyn & Bacon.
- Ward, C. & Kennedy, A. (1993). "Where's the culture in cross-cultural transition? Comparative studies of sojourner adjustmen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4(2), 221-249.
- Wehman, P. (1996). *Life Beyond the Classroom: Transition Strategies for young people with Disability 2(th)*. Paul. Brookes Publishing Co.
- 1 차원고접수 : 2010. 5. 06.  
심사통과접수 : 2010. 6. 15.  
최종원고접수 : 2010. 6. 24.

##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Vocational Adjustment Program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Byung-Sook Kim**

**Yoon-Jung An**

**Hye-Ryong Song**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has a purpose to develop vocational adjustment program that is essential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to settle down in our society and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In order to develop practical program with reflecting their unique issues and experiences comparing to other groups, many diverse ways such as questionnaire, face to face in-depth interview, and expert-interview were used. Vocational adjustment program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was consisted of six parts like understanding multi-culture, basic economical concepts and practical use, vocation and labor market comprehension, self-understanding and analysis, cultivating organization adaptation and job capacities, establishing career goal. After carrying into effect the program, the result was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eer identity, the understanding vocational information, adaptation of vocational culture, career aspiration to women who have taken the vocational adjustment program. Through the program, marriage immigrant women will be high in self-efficacy with the real recognition of the Korean labor market and expect their positive future which might be better than now. Finally this can help them adjust our society in the positive way.

*Key words : marriage immigrant women, multi-cultural family, vocational adjustment program, career identity, career inspiration, vocational information, adaptation of vocational culture*